

심하면 실명까지...얼굴 대상포진, 즉시 치료해야

광혜병원

대상포진 수포·발진 사라진후 계속 아픈 대상포진후 신경통 미세전류 활용 생체전류치료 나노화 무기물 전문 한의약품 함께 병행 땀 통증 크게 줄어

주부 P씨(63)는 3개월 전 망막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이마 쪽이 따끔거렸다. 3일 이후부터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로 커진 물집 같은 수포가 우측 눈썹 부분에 자리 잡아 고생했다. 대상포진이었다. 생활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까지 동반됐다. 진통제, 항바이러스제, 링거 주사 등 다양한 처방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망막 수술을 한 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미 눈 안까지 일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투해 흐리게 보이는 증상도 나타났다.

대상포진을 오래 두면 안 된다는 지인의 권유로 서울 광혜병원을 내원해 생체전류치료와 나노화무기물 기반의 면역증강제를 처방받았다. 이후 통증은 20~30% 수준까지 줄어들었고 컨디션이 좋은 날엔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전됐다.

박경우 서울 광혜병원 병원장은 "P씨는 대상포진이 발병된 후 약 3개월 동안 통증이 지속된 전형적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였다"고 설명했다. 박원장은 "눈 망막 수술 이후에 일시적인 면역 저하로 대상포진이 발병했고, 발병 부위가 눈썹과 눈 주변이었기 때문에 눈 관련 대상포진 합병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다행히 비교적 빠른 내원으로 집중 치료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증이나 신경 손상 없이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에



서울 광혜병원 면역통증센터에서 대상포진으로 손상된 신경세포와 신경염증을 치료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병행 처방하는 나노화무기물 기반의 전문 한의약품과 생체전류치료(오른쪽). 서울 광혜병원 의료진이 내원한 환자에게 생체전류치료를 행하고 있다.



서울 광혜병원 면역통증센터에서 대상포진으로 손상된 신경세포와 신경염증을 치료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병행 처방하는 나노화무기물 기반의 전문 한의약품과 생체전류치료(오른쪽). 서울 광혜병원 의료진이 내원한 환자에게 생체전류치료를 행하고 있다.

의한 수포나 발진이 모두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남아 고통받는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이다. 대상포진 발병 부위 중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다름 아닌 '얼굴 대상포진'이다. 통상 대상포진 중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20% 미만인데, 얼굴 대상포진의 경우 많게는 30% 이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얼굴 대상포진은 다른 부위의 대상포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얼굴 대상포진은 좁게는 안면부 전반, 넓게는 머리, 목 주변까지를 포함한다. 다른 부위의 대상포진은 주로 척추 주변의 신경절 쪽에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다가 활성화돼 나타나는 반면, 얼굴 대상포진은 주로 삼차신경절이라는 부위에 해당 바이러스가 숨는다는 점이 다르다. 바이러스 잠복 위치상 차이 때문에 얼굴 대상포진은 여러 대상포진 합병증과 관련해서도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다. 첫째, 눈 신경과 눈 쪽 관련 합병증으로는 각막, 포도막, 홍채, 망막 손

상 및 실명 등이 있다. 둘째, 안면 신경 관련 합병증은 안면 신경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귀쪽 신경이나 내이 부분 합병증은 난청이나 이명과도 관련이 있다. 넷째, 뇌쪽 합병증은 뇌수막염 등의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합병증 발병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그 후유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특히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서울 광혜병원 면역통증센터에서는 '생체전류치료'와 '나노화무기물' 기반 전문 한의약품'을 병행해 대상포진을

치료한다. 박 원장은 "생체전류치료는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염증 발생 부위에 고전압 미세전류를 통해 약화된 세포 막을 전위를 충전하고 생체전류의 흐름과 혈류를 정상화하는 원리"라며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백금강과 백금단은 내성과 부작용이 없으며 면역력을 높여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를 추가 공격하는 것을 막고 이미 발생한 신경세포와 주변 근조직 염증을 치료하는 데 주효하다"고 덧붙였다. 한재범 기자

건조한 날 불청객 '안구건조증' 포도당·멘톨 인공눈물 써볼까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돼 안구 표면이 손상돼 눈에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등 증상을 느끼는 질환이다. 공기 중 유해물질로 인해 쉽게 발병할 수 있으며 주로 건조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완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고 전신 피로, 두통 등 증상이 동반된다.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렌즈가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눈물을 흡수해 건조증이 더욱 악화되면서 각막·결막염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눈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

JW중외제약 '프렌즈 시리즈' 영양 공급에 상쇄한 느낌까지 보존제가 렌즈에 붙는 것 막아 모든 종류 콘택트렌즈에 사용기 위해서는 가급적 눈을 만지지 말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건조한 사무실에서는 되도록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쓰는 게 좋으며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하루 8~10컵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다.

JW중외제약의 '프렌즈 시리즈'는 안구건조증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된 인공눈물 제품이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포도당을 통해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멘톨 성분이 함유돼 눈을 상쾌하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인공눈물이다. 지금까지 안약에 비타민을 첨가한 경우는 있었지만 포도당과 멘톨 성분이 첨가돼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인공눈물 제품은 처음이다. 이 제품은 기존 인공눈물과 달리 특허 조성을 통해 보존제가 렌즈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준다. 때문에 모든 종류의 콘택트렌즈(소프트·하드·일회용



JW중외제약 인공눈물 '프렌즈 시리즈'. [사진 제공=JW중외제약]

렌즈 등)를 착용한 후에도 직접 점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프렌즈 아이드롭은 자연 눈물에 가장 가까운 성분인 '아이드롭 스킨'과 멘톨 성분이 함유돼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이드롭 쿨', 멘톨 성분 함유량이 높아 강한 청량감을 주는 '아이드롭 쿨 하이' 등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프렌즈 아이엔젤'은 자극

적인 방부제가 없어 예민한 눈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인공눈물이다. 안구건조증이나 바람·태양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화끈거림, 자극감 등을 완화시켜주며 이 같은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점안제다. 이 제품은 기존 제품들과 달리 보존성 향상을 위해 첨가해 왔던 염화벤잘

코늄 등 보존제를 넣지 않아 안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 프렌즈 아이드롭처럼 렌즈를 낀 상태에서도 점안할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프렌즈 시리즈'는 이물질을 제거할 뿐 아니라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점이 있다"며 "향후 10·20대 여성층을 타겟으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아이 케어(Eye Care)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눈물 프렌즈 시리즈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동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재범 기자

고려인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방법
고려인삼으로
건강을 선물하세요!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뼈 건강 개선에 뛰어난
고려인삼이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은 **고려인삼**으로 지키세요!